

이렇게 들었다

정재 관리

조계사 신협의 과장과 조계종 총무원의 재무과장이 수석익원에 달하는 고객 예치금을 불법 인출해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건은 불자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불교계의 공공형량사건은 비리에 관련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재의 손실이고, 불교계 전체의 사회적 위상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크다.

사찰이나 종단, 불교계 시설의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고 대리인일 뿐이다. 그렇기에 정재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주의깊게 살펴야 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교계 종사자 개인이 초심으로 돌아가 정재를 지키고, 제도적으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살펴본다.

주지 않는 건 일체 갖지말라

■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 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 차라리 큰 불구덩이에 들어 갈지언정 탐욕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대승계경)

■ 너희들 비구는 계(戒)에 머물 수 있게 되거든 마땅히 오근(五根)을 제어함으로써 방일(放逸)하여 오욕(五欲)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마치 소 치는 사람이 막대를 쥐고 감시함으로써 소가 멋대로 날뛰어 남의 곡식을 못 먹게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오근을 내버려둔다면, 비단 오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없이 번져 가서, 제어하려야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사나운 말을 고삐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말 속에서 도리어 사람을 끌고 가 구멍에 빠뜨리는 것 같으니라. (유교경)

■ 항상 분소의(糞掃衣)를 걸치고 한 개인인 깨어진 발우를 지녀서, 나무 열매나 오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면, 그는 부처님네의 칭찬하는 바가 된다. (제법집요경)

■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가 되어 재물 모으기에 열중한다. 고하여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쌓아놓지만, 하루아침에 수명이 다하고 말 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 주지 않는다. (생경)

■ 분수를 넘는 탐욕보다 두려운 것 없고, 공멸보다 더 큰 배고픔 없다. 가난을 타하면서 베풀어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의 두려움은 금생에나 내생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 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뜨지 못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죽더라도 태어나는 곳은 서로 다르리라. (법어 집야함경)

■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수타니파타)

■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대 자신을 해방시키라. 그리고 존재하라. 누구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 적게 가질수록 더욱 사랑할 수 있다. (수타니파타)

■ 시주한 물건이나 대중의 것, 나라의 것, 개인 소유물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지 말라. 세금을 속이거나 배상을 안 내는 것은 모두 훔치는 행위이다. (사미십계법)

■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인이 있는 물건이든 도둑들이 훔친 것이든 바를 한 개 풀한 포기라도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수단을 써서 훔쳐서는 안된다. (범망경)

■ 차라리 손을 끌을지언정 울지 못한 물건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 (사미십계법)

■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항상 깨끗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무엇이든 주면서든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불살재경)

■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뜬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따위의 보배를 깨진 기왓장처럼 본다. 비단옷을 현 누더기 같이 본다. (사십이장경)

■ 모든 부처님은 탐욕을 감옥, 그물, 독약, 그리고 예리한 칼날처럼 생각한다. (보살본연경)

■ 만일 법답지 않게 재물을 구하고 또 법답거나 법답지 않게 구하는 것은 모두 악이 된다. (중야함경)

8월 16일(수)

■ 중·고교 교사 위한 불교강좌=새생각실천회는 18일까지 3일간 오전 9시30분~오후 12시30분 서울 해오막(4호선) 부근 만들레영토에서 제2기 중·고교 선생님을 위한 불교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02)313-7028

■ 독일 반편 브로유케 교수 초청 강연회=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오후4시 동국관 L301호에서 '한국불교의 서구적 이해'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석학 폴 반편 브로유케 교수(벨기에·독일)의 초청강연회를 마련한다. (02)2260-8507

■ 구로승무사사무소불자회 10주년법회=철도청 구로승무사사무소법우회는 오전10시 구로역 부근 관음포교원에서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851-9050 박창식

■ 수유기도정진법회=한국불교연구원은 오전11시 경기도 광주군 유마정사에서 수유기도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3)761-6167

■ 직장직능 불교단체 회의=조계종 포교원은 오후7시 회의실에서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연다. (02)720-7060

■ 정부기관 불자회 합동법회=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불자회는 오후6시10분 농림부 대회의실 3동 421호에서 청월스님(승광사 율원)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2)500-2654 송은정

8월 18일(금)

■ 동화사 자원봉사단 창단식=동화사는 오후2시 통일대불전에서 제9교구 본·말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 자원봉사단 창단식을 거행한다. 자원봉사단은 사찰 및 지역사회 각종 행사에 행사지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한다. (053)985-4404

■ 천불동 수련회=천리안불교동호회는 20일까지 2박3일간 남원 실상사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한 특강과 도법스님 법문, 지리산 일대 불자지 답사, 영화관람,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016-834-0405

■ 경남교사수련회=조계종 포교원은 20일까지 고성 육천사에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 수련회를 개최한다. (02)720-7060

8월 19일(토)

■ 선정회 철야정진법회=선학원 선정회는 중앙선원 시민선방에서 8월 철야정진 참선법회를 봉행한다. (02)732-3327

■ 부산불교지도자 수련회=부산불교신도회는 양일간(19~20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15회 부산불교지도자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051)464-2020

■ 조계종 신도회 임원교육=조계종 포교원은 20일까지 월정사에서 유적지와 관광지 그리고 현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실크로드 답사를 떠난다. 답사인원은 약 20명. (02)760-5171 유영열

■ 본동종복합사 회원=본동종복합사회복합사회원은 양일간(17~18일) 지하강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회를 무료로 상영한다. (02)817-8054

■ 무료진료=본동종복합사회복합사회원은 17일 오전10시~오후3시 지하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02)817-8054

■ 실크로드 탐방=한국식물문화연구회는 9월29일~10월9일 서안, 천수, 난주(병령사 석굴), 파육관, 안서(돈황석굴), 투루관(베제크석굴), 우루무치 등의 불교 유적지와 관광지 그리고 현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실크로드 답사를 떠난다. 답사인원은 약 20명. (02)760-5171 유영열

■ 본동종복합사 회원=본동종복합사회원은 양일간(17~18일) 지하강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회를 무료로 상영한다. (02)817-8054

■ 무료진료=본동종복합사회복합사회원은 17일 오전10시~오후3시 지하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02)817-8054

■ 실크로드 탐방=한국식물문화연구회는 9월29일~10월9일 서안, 천수, 난주(병령사 석굴), 파육관, 안서(돈황석굴), 투루관(베제크석굴), 우루무치 등의 불교 유적지와 관광지 그리고 현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실크로드 답사를 떠난다. 답사인원은 약 20명. (02)760-5171 유영열

■ 본동종복합사 회원=본동종복합사회원은 양일간(17~18일) 지하강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회를 무료로 상영한다. (02)817-8054

■ 무료진료=본동종복합사회복합사회원은 17일 오전10시~오후3시 지하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02)817-8054

■ 실크로드 탐방=한국식물문화연구회는 9월29일~10월9일 서안, 천수, 난주(병령사 석굴), 파육관, 안서(돈황석굴), 투루관(베제크석굴), 우루무치 등의 불교 유적지와 관광지 그리고 현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실크로드 답사를 떠난다. 답사인원은 약 20명. (02)760-5171 유영열

■ 본동종복합사 회원=본동종복합사회원은 양일간(17~18일) 지하강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회를 무료로 상영한다. (02)817-8054

■ 무료진료=본동종복합사회복합사회원은 17일 오전10시~오후3시 지하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02)817-8054

■ 실크로드 탐방=한국식물문화연구회는 9월29일~10월9일 서안, 천수, 난주(병령사 석굴), 파육관, 안서(돈황석굴), 투루관(베제크석굴), 우루무치 등의 불교 유적지와 관광지 그리고 현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실크로드 답사를 떠난다. 답사인원은 약 20명. (02)760-5171 유영열

■ 본동종복합사 회원=본동종복합사회원은 양일간(17~18일) 지하강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회를 무료로 상영한다. (02)817-8054

■ 무료진료=본동종복합사회복합사회원은 17일 오전10시~오후3시 지하강당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과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02)817-8054

신행 캘린더

수화·구화로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청각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불교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연화복지원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송파구 탄천장애인 운전연습장에서 매주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무료 운전교육을 실시한다. 건청인 강사가 수화와 구화로 운전교육을 교육해 언어소통의 장애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또한 매주 1회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연화복지원은 교육생들이 합격할 때까지 무한 책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차량구입, 보험 가입, 도로주행 연수 문의에는 수화통역을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02)2202-5831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강원지역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교육을 실시한다. (02)720-7060

■ 전국 포교사 연수=조계종 포교사단은 20일까지 부산 합치골 수련원에서 전국 포교사 팀장 지도자연수를 개최한다. (02)737-7588

8월 20일(일)

■ 영산법회사 봉천회법회=영산법회사는 오전11시 장흥원당에서 세계평화 기원 불사리탑 건립을 위한 봉천회법회를 봉행한다. (02)762-4922

■ 심우회 울지부대 신병교육대 대중공양=심우회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울지부대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불자 장병들에게 합장주와 빵, 떡, 음료수 등을 나눠주고,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575-2525

■ 금강메이리 간암환우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이리는 충남 서산의 팔봉산을 등반하고 안면도 휴양림을 거쳐 간암환우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7시 동대문 이스턴관광호텔 앞. (02)772-9517

8월 22일(화)

■ 비전향장기수 송환 축하 음악회=불교장기수후원회와 수원포교당은 오후 5시 수원포교당에서 '그리운 산하, 아 통일여'를 주제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축하 통일음악회를 개최한다. (02)725-4277

■ 공무원불자 합동 성지순례=조계종 포교원은 오후7시 회의실에서 공무원불자 합동 성지순례법회를 위한 1차 준비 회의를 연다. (02)720-7060

게시판

■ 여성봉사단 회원=육수종합사회복지관은 녹색기계를 함께 운영하며 지역사회 환경운동에 이바지할 일을 여성봉사단 회원을 모집한다. (02)2282-1100

■ 간호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위안을 주고, 벗이 되어 줄 불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58-8112 권혁운

■ 중고 피아노=법정사는 법회에 사용할 중고 피아노를 기증해 줄 불자를 기다린다. (02)971-0303

■ 도서분류 봉사자=서울시립은광노인종합복지관은 도서분류 전문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자는 1만여 권의 후원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맡게 된다. (02)385-1351

■ 식당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에서 식

사준비를 도와 줄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요를 지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1)716-4215

■ 금정불교대학 신입생=범어사 금정불교대학은 교리반과 경전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리반은 주·야간으로 나뉘며, 경전반은 <금강경> <육조단경> <선가경> 반으로 각각 세분된다. (051)866-7277

■ 발표력 향상 교실=자양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4시 발표력 향상을 위한 강좌를 연다. (02)458-1664

■ 발맞추기교육=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31일부터 매주 목요일 14주간 발맞추기 교육을 실시한다. (02)734-0612

■ 과학·수학 특강=능인종합

사회복지관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2~24일 4일간 과학과 수학, 정보기술이 통합된 교육도구 레고타다 과학교실을 연다. (02)577-5800

■ 사무원=광명선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대 여성분자를 대상으로 사무원을 구한다. (02)584-1108

■ 간호사, 생활보조원, 취사부직원=인덕노인복지회관은 간호사(조무사 포함)와 생활보조원, 취사부 직원을 모집한다. (02)385-8205

■ 박원일 전 전국신도회장의 차남 준형씨가 강구생양을 신부님 맞아 23일 오후1시 삼성동 공헌터미널 3층 예식실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02)551-0095

법회안내

'관음신앙 이해' 설법

인환 등 국대 명예 교수 스님은 19일 오후 3시30분

서울 구도법당에서 '관음신앙의 이해'를 주제로 설법한다. (02)3411-6167

보현불교대 법문

이름 직지사 승가대학장 스님은 16일 오후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법문한다. (042)624-6555

동화사 일요법회

해곡 동화사 원주 스님은 13일 오전10시 통일대불전에서 열리는 '시민을 위한 동화사 일요법회'에서 '불교성전'을 주제로 법문한다. (053)426-9378

■ '불교의 본질' 특강 강건기 전북대 교수는 24일 오전 10시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불교의 본질과 실행'에 대해 특강한다. (062)228-9098

불교 구원관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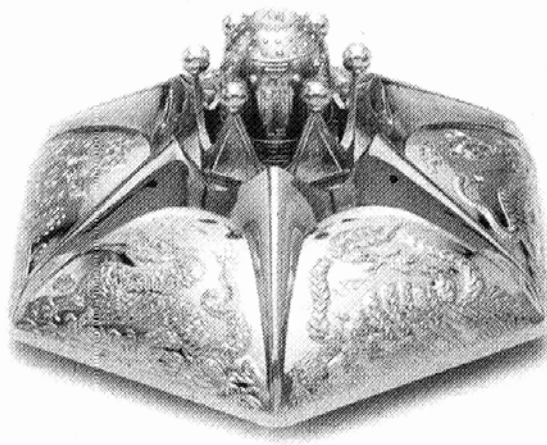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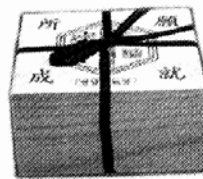
최봉수 동국대 교수는 22일 오전 10시 정릉동 삼보정사에서 '불교의 구원관'에 대해 강의한다. (02)913-3746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 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안전운행·사업흥왕·불화방지·가내화합·시험합격·악귀퇴치·극락왕생·선신수호·삼재예방·관재소멸·운수대통 하게하고 기정을 편안하게 해주며 천(天)지(地)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점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 사용지 ◆ *모든 불자님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의장등록·상표등록 (특허출원)

◆ 구입지 ◆ 전국불교용품점, 서점·임지, 철학관

(주)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공장: 051) 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처도 많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